

중국 연변지역의 조선족과 한족의 의식구조 비교¹⁾²⁾

李將鎬* · 魯錫鍊 · 朴泰洙**

-----〈목 차〉-----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IV. 연구결과의 종합 및 논의
II. 연구방법	V. 결언
III. 연구결과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중국과 한국은 1992년 양국간의 공식 수교 이후 팔목할만한 경제·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으며 그 교류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국의 교역량은 1996년 초에 이미 200억 달러를 상회함으로써 중국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한국과 가장 많은 무역 거래를 하는 나라가 되어 있다. 한편 인적 교류 면에서 보면 약 4천명 이상의 한국 유학생이 중국내의 각급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조선족들의 한국 노무시장 진출은 현재 연간 약 5만 여명 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중국 진출과 함께 연간 최소 5만명 이상의 한국 관광객들이 북경 등 중국의 역사적 명소와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방문하는 상황에서, 양국 주민들간의 개

*서울大

**延邊大

- 1)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의 '1994년도 대학발전기금 일반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 조사연구의 부분적인 결과는 동일 내용의 설문지에 대한 서울대학생 집단($N = 304$)의 응답 내용을 함께 비교한 "중국 연변 조선족의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연구"(서울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95, 31-45) 題下의 논문으로 발표되었음.
- 2) 본 연구의 연변지역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변대학 許清善교수의 지원이 컸으며, 설문지 응답 결과의 분석에서는 연변대학 教心教研部의 趙海蘭, 崔松美, 서울대 心理學科의 신희천, 김정욱의 노고가 많았다.

인적·집단적 접촉이 일과성이 아닌 상시적 보편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

중국의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 탈냉전적 시대조류에 따른 양국간의 이러한 교역과 주민접촉은, 당연히 상대국의 문화의식, 사회가치관, 개인 생활 양식 등에 이르는 경험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접촉과정에서의 인간적 갈등이나 이해상의 불협화음 등도 함께 야기하고 있다. 중국주재 한국 기업체의 한국인 경영진과 중국인 공인들간의 일부 의식갈등이나, 최근 사회문제로 보도된 연변 조선족 노무자들의 한국내 불법 체류 등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은 바로 이질 사회간 문화교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게 마련인 과도기적 갈등의 단면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양국내에서 한국인과 가장 접촉이 많은 중국 연변 조선족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변 자치주에서 조선족과 생활공간을 함께하는 한족(漢族)과의 의식구조 비교를 시도한 것이다. 조선족-한족간의 의식구조 비교 연구는, 첫째로 한·중 민간교류 차원에서 요구되는 인간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로 상호 이질적인 사회주의-자본주의 이념체제 하에서의 양국 주민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또는 장차의 한반도 통일 시대에서 간접적이나마 유용한 참고자료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연변 자치주는 현재 85만여명의 조선족들이 집거하고 있는 곳이며, 이 조선족 인구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등 주로 중국 동북3성에 흩어져 살고 있는 중국내의 전체 조선족(약 200만)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이다. 이 지역은 일제시대에는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는 민족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으며, 해방후에는 한국 동란중 중국 지원군의 후방 근거지의 하나로서 그리고 문화혁명 기간중의 여러 가지 고난의 역할을 이곳의 조선족이 직접 간접으로 경험한 지역이다. 남북분단으로 오랫동안 소통이 단절되어 오던 이곳은 최근 한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적지않은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연변지역 주민은 40%가 조선족이며 나머지 60%가 한족이다. 이들은 연변이라는 공통의 공간속에서 거주한다는 특성과 더불어 조선족과 한족이라는 민족적 차이가 빚어내는 일련의 심리적 특성을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연변지역 조선족의 의식과 심리상태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한족과의 비교 조사를 하는 것은 한족 중심의 중국 사회 속에서 연변 조선족이 지니는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연변 지역에 거주하는 한족과 조선족의 의식 및 심리상태는 각 연령 집단에 따라서도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한국과의 수교 이후 급속한 교류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청소년

집단, 대학생 집단, 그리고 사회인 집단에 걸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차이가 전반적인 심리상태 및 의식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각각 20대와 30대를 대표하는 연변대학생 집단과 연변사회인 집단과 더불어 10대를 대표하는 연변일중생(한국의 고등학생 수준) 집단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변 조선족의 연령별 의식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변지역 중국주민들의 심리상태 및 의식을 탐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설문지 문항은 총 16개)을 하였다. 1) 현재의 직업적 소망은 무엇이며 그 달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2)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3)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인지, 4) ‘행복한 인생’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5) 현재 나의 입장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등과 같은 문항을 통하여 개인으로서의 심리 상태와 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개혁(세계화 등)’, ‘대한민국(남조선)’, ‘한(조선)반도의 통일’ 등에 대해 연상되는 생각과 느낌을 평정하도록 하는 문항을 통하여, 한국의총체적 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한 연변지역 피조사자들의 심리적 상태와 의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수도인 연길(延吉)시 주민을 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조선족 고등학교인 연변1중의 1학년 두 학급, 연변대학(延邊大學) 4개 학부에 재학중인 조선족-한족 학생, 그리고 일부 연길시 거주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1995년 6월 중 「일반 심리상태에 관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선임 연구자와 연변대학 교원의 감독하에 집단별로 배부한 후 응답지를 수합하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주로 선임 연구자의 기획으로 7개 Likert척도(8점) 문항을 포함한 총 16개 문항(중국어·조선어·양종)으로 제작되었으며, 연구진 전체 회의에서의 검토와 예비조사가 선행되었다. 총 396명이 본 연구목적에 합당한 기준으로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합당한 유효 응답지는 조선족 327명, 한족 69명이었다.

2. 설문 응답자의 주요 인구학적 특징

본 연구조사에서 분석 가능한 설문응답자를 제출한 반응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延邊一中	延邊大	延邊社會人	
	朝鮮族 (79명)	朝鮮族 (200명)	漢族 (31명)	朝鮮族 (48명)
性 女	35명 (44.3%)	134명 (67%)	20명 (64.5%)	34명 (70.8%)
	44명 (55.7%)	66명 (33%)	11명 (35.5%)	14명 (29.2%)
나이(평균)	17.0세	21.5세	21.2세	30.9세
				21.6세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변 지역 중국 주민들의 심리 상태 및 의식에 대한 탐색적인 조사연구(explorative survey)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연변 지역 주민들의 심리상태를 조선족과 한족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조선족 내에서 연령변화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변일중생, 연변대생, 사회인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설문 문항에 대한 집단간 반응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차이검증을 위해 oneway ANOVA를 사용했다.

4. 분석내용

본 연구에서는 연변지역 중국 주민들의 심리 상태 및 의식을 살펴봄에 있어서, 1) 현재의 직업적 소망과 그 달성 가능성, 2)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3)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 4) ‘행복한 인생’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것, 5) 현재 나의 입장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문항을 통하여, 개인으로서의 현재의 심리상태와 의식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개혁(세계화), 대한민국, 한반도의 통일 등에 대해 연상되는 생각과 느낌을 평정하도록 하는 문항을 통하여,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현재의 심리적 상태와 의식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소망하는 직업에 관한 반응

현재의 직업적 소망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순위별로 나열한 것이 〈표

〈표 2〉 소망하는 직업 순위 및 그 실현 가능성

순위	延邊一中		延邊大		延邊社會人	
	朝鮮族	朝鮮族	漢族	朝鮮族	漢族	
1순위	企業家 (27.4%)	教員 (38.0%)	文秘 (35.5%)	文秘 (20.8%)	教員 (36.8%)	
	科研人員 (23.4%)	文秘 (16.0%)	公務員 (22.6%)	財會 (16.7%)	文秘 (21.1%)	
3순위	醫師 (11.7%)	企業家 (14.5%)	教員 (9.7%)	其他 (14.6%)	企業家 (13.2%)	
	律師 (10.4%)	公務員 (14.5%)	個體戶 (6.5%)	教員 (12.5%)	律師 (7.9%)	
5순위	其他 (7.8%)	個體戶 (3.0%)	其他 (6.5%)	企業家 (8.3%)	其他 (5.3%)	
	가능성 72.26%	61.69%	50.0%	72.42%	57.23%	

- a. 여기서 科研人員은 과학자와 연구자를 말한다.
- b. 文秘는 중국의 직업유형의 하나이며 작가, 기자, 번역가 등을 말한다.
- c. 財會도 중국의 직업 유형의 하나로 여기에는 稅吏도 포함된다.
- d. 個體戶는 개인사업을 일컬으며, 상점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직업이다.

2)에 제시되어 있다.

조선족과 한족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두 집단 모두 교원, 문비(文秘)를 소망한다는 반응이 전체 응답의 50%에 이를 정도로 이 직업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였다. 주로 교원, 문비, 기업가, 공무원 등과 같은 직업을 조선족과 한족 모두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대학생 집단 내에서 살펴보면, 조선족 학생의 경우 기업가가 3번째 선호직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한족 대학생의 경우 기업가를 선호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 주목된다. 사회인 집단에서 보면 조선족의 경우, 재회(財會)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한족은 기업가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조선족집단 내에서 연령에 따른 비교를 할 때, 몇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수 있다. 즉, 연변일중학생 집단은 기업가를 소망하는 직업의 1순위로 꼽은데 비해 연변대생과 연변사회인 집단은 각각 3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연변대생과 사회인 집단에서 문비, 교원과 같은 직업이 선호된데 비해 연변일중생 집단은 과연(科研)인원, 의사, 윤사와 같은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망하는 직업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연변 조선족 사회인 집단이 가장 높은 73.42%로 평정했으며, 연변대 한족 학생이 가장 낮은 50.0%로 응답했다. 조선족과 한족의 평정상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변대생

〈표 3〉 심리적 중요성의 순위 반응

순위	延邊一中		延邊大		延邊社會人	
	朝鮮族	朝鮮族	漢族	朝鮮族	漢族	
1순위	능력·성공 (70.5%)	능력·성공 (43.0%)	능력·성공 (38.7%)	능력·성공 (45.8%)	능력·성공 (26.3%)	
2순위	자존심 (10.3%)	보장된 일터 (21.0%)	보장된 일터 (38.7%)	보장된 일터 (20.8%)	보장된 일터 (21.1%)	
3순위	사랑 (6.4%)	사랑 (10.0%)	사회발전 복무 (6.5%)	먹고 입는 것 (10.4%)	사회발전 복무 (15.8%)	
4순위	명예 (2.6%)	자존심 (8.5%)	먹고 입는 것 (6.5%)	안전한 거주 (6.3%)	자존심 (10.5%)	
5순위	먹고 입는 것 (2.6%)	사회발전 복무 (6.5%)	사랑 (6.5%)	사회발전 복무 (6.3%)	사랑 (7.9%)	

과 사회인집단 내에서의 조선족과 한족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전체 조선족과 한족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310) = 4.14$, $p < 0.05$). 조선족 집단내에서 연령에 따른 직업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변대생집단과 연변사회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241) = 4.58$, $p < 0.05$).

2. 심리적 중요성에 관한 반응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8개의 지문(먹고 입는 것, 보장된 일터, 명예, 능력발휘·성공, 안전한 거주, 사랑, 자존심(주체성), 사회국가 발전에 복무) 상에서 평가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조선족과 한족을 비교해 보면, 모든 집단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하는 것’을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보장된 일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중요성의 순위상에서 조선족과 한족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조선족이 ‘사랑’, ‘먹고 입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것에 상대적으로 가치를 두는 반면, 한족은 상대적으로 ‘사회발전에 복무’ 하는 것에 상대적인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집단내에서 비교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보장된 일터’, ‘먹고 입는 것’, ‘안전한 거주’와 같은 구체적인 필요에 심리적 중요성을 두는데 비해, 나이가 적은 집단일수록 자존심, 사랑, 명예와 같은 추상적인 것에 심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 행복을 느끼는 경우의 순위 반응

순위	延邊一中		延邊大		延邊社會人	
	朝鮮族	朝鮮族	漢族	朝鮮族	漢族	
1순위	성공 (59.5%)	성공 (48.5%)	성공 (58.1%)	성공 (58.3%)	성공 (78.9%)	
2순위	부모사랑 (21.5%)	부모사랑 (12.5%)	친구이해 (12.9%)	부모사랑 (6.3%)	부모사랑 (7.9%)	
3순위	친구이해 (10.1%)	친구이해 (8.0%)	부모사랑 (6.5%)	친구이해 (6.3%)	기타 (5.3%)	

3. ‘행복하다고 느낄 때’에 대한 반응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5가지 지문(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살뜰함, 생활중의 성공(예; 입학, 취업 등), 연애, 친구의 이해, 기타)에 대한 응답이다.

모든 집단에서 생활중의 성공을 거둘 때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연변사회인 집단에서 한족의 경우 그 비중이 가장 높음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연변대 한족 학생 집단만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보다는 친구의 이해를 받을 때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조선족과 한족간 그리고 조선족내에서 연령집단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행복한 인생의 조건에 관한 반응

‘행복한 인생’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8가지 지문(경제적 안정, 좋은 사회관계, 미래사회에 공헌, 즐거운 오락, 종교(신앙)생활, 성실한 사랑, 건강, 자신의 인간적 발전)에 대한 응답 순위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행복한 인생’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모든 집단이 ‘건강’을 꼽았으나 두 번째 순위에서 집단에 걸쳐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먼저 조선족과 한족의 차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연변대학생 집단에서 조선족은 성실한 사랑과 경제적 안정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선호가치로 꼽았으며, 한족의 경우 경제적 안정을 사랑보다 우선시했음을 볼 수 있다. 연변사회인 집단에서는 한족 보다는 조선족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에 더 비중을 두었음을 보이고 있다.

조선족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면, 〈표 3〉에 제시된 ‘심리적 중요

〈표 5〉 행복한 인생과 관련된 것의 순위 반응

순위	延邊一中		延邊大		延邊社會人	
	朝鮮族	朝鮮族	漢族	朝鮮族	漢族	
1순위	건강 (32.9%)	건강 (31.0%)	건강 (29.0%)	건강 (29.2%)	건강 (31.6%)	
2순위	사랑 (20.3%)	사랑 (20.0%)	경제적안정 (29.0%)	경제적안정 (27.1%)	경제적안정 (21.1%)	
3순위	인간적발전 (16.5%)	경제적안정 (19.5%)	사랑 (16.1%)	사랑 (16.7%)	사랑 (13.2%)	
4순위	사회관계 (13.9%)	사회관계 (12.5%)	사회관계 (16.1%)	인간적발전 (16.7%)	사회관계 (10.5%)	
5순위	경제적안정 (8.9%)	인간적발전 (8.0%)	미래공헌 (6.5%)	사회관계 (8.3%)	인간적발전 (10.5%)	

성'을 묻는 항목의 응답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조선족들은 나이가 들수록 '보장된 일터', '먹고 입는 것', '안전한 거주'와 같은 구체적인 필요에 심리적 중요성을 두는데 비해, 나이가 적은 집단일수록 자존심, 사랑, 명예와 같은 추상적인 것에 심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복한 인생과 관련된 것'을 꼽을때도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경제적 안정을 많이 선택했으며(각각 8.9%, 19.5%, 27.1%), 나이가 적은 집단일수록 성실한 사랑과 같은 추상적인 조건을 많이 택하였다(각각 20.3%, 20.0%, 16.7%).

5. 한국의 개혁정책(세계화 등)에 대한 반응

한국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연상되는 느낌이나 생각을 '밝다, 높다, 강하다, 믿음직하다, 나와 밀접하다'와 같은 의미차원에서 8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는 각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은 한국의 개혁정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인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선족과 한족의 평정상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모든 의미차원에서 한족이 다소 높게 평정하기는 했으나 집단별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사에 응답한 조선족 내에서는 연령 집단별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변일중생 집단이 가장 긍정적인 평정을 하였고 연변사회인 집단이 가장 낮은 평정을 하였다. 연령 집단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변 일중생들은 연변대생들에 비해 한국의 개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

〈표 6〉 한국의 개혁정책에 대한 반응

순위	延邊一中		延邊大		延邊社會人	
	朝鮮族	朝鮮族	漢族	朝鮮族	漢族	
밝다	7.36 ^a (1.25) ^b	6.87 (1.44)	7.03 (1.76)	6.36 (1.76)	6.92 (1.71)	
	7.11 (1.30)	6.52 (1.58)	7.00 (1.36)	6.21 (1.78)	6.52 (1.78)	
높다	6.89 (1.50)	6.51 (1.48)	6.96 (1.25)	6.48 (1.59)	6.57 (1.55)	
	7.07 (1.43)	6.88 (1.35)	6.93 (1.52)	6.04 (2.19)	6.73 (1.65)	
믿음직하다	7.05 (1.60)	6.89 (1.47)	7.19 (1.16)	6.66 (1.65)	6.73 (1.89)	
나와 밀접하다						

a. 8점 척도상에서의 평균

b. ()은 standard deviation

로 나타났는데, 특히 ‘밝다’ 차원과 ‘높다’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278) = 7.19$, $p < 0.01$; $F(1,277) = 8.52$, $p < 0.01$). 또한 연변일중생들은 연변사회인들에 비해서도 한국의 개혁정책에 대해 높은 평정을 했는데, ‘밝다’, ‘높다’ 그리고 ‘믿음직하다’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125) = 13.92$, $p < 0.01$; $F(1,124) = 10.42$, $p < 0.01$; $F(1,125) = 10.22$, $p < 0.01$). 한편, 연변대생 집단은 연변사회인 집단보다 다소 높게 한국의 개혁정책을 평정했으며 ‘밝다’ 차원과 ‘믿음직하다’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246) = 4.30$, $p < 0.05$; $F(1,246) = 11.13$, $p < 0.01$).

6. 한국(대한민국)에 대한 반응

연변 조선족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대한민국)에 대해서’ 연상되는 느낌이나 생각을 ‘밝다, 높다, 강하다, 믿음직하다, 나와 밀접하다’와 같은 의미차원의 8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한 반응 결과가 〈표 7〉에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와 함께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과 한족은 한국에 대한 평정상에서 집단 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연변대학생 집단에서는 조선족이 한족에 비해 한국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비해 연변사회인 집단에서는 한족이 조선족보다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 7〉 한국에 대한 평정

순위	延邊一中		延邊大		延邊社會人	
	朝鮮族	朝鮮族	漢族	朝鮮族	漢族	
밝다	7.22 ^a (1.43) ^b	6.21 (1.85)	5.38 (2.18)	5.82 (2.00)	6.64 (1.75)	
높다	7.18 (1.35)	6.11 (1.81)	5.25 (1.87)	5.76 (1.97)	6.32 (1.82)	
강하다	7.01 (1.51)	5.89 (1.92)	5.41 (1.85)	5.52 (2.08)	6.55 (1.64)	
믿음직하다	7.19 (1.35)	6.43 (1.59)	5.54 (1.96)	5.41 (2.15)	6.41 (1.55)	
나와 밀접하다	7.32 (1.40)	6.49 (1.81)	4.87 (2.12)	6.50 (1.79)	6.00 (2.28)	

a. 8점 척도상에서의 평균

b. ()은 standard deviation

살펴보면, 연변대생 집단의 경우 조선족이 한족보다 ‘밝다’, ‘높다’, ‘믿음직하다’, ‘나와 밀접하다’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평정을 하였다($F(1,229) = 5.09$, $p < 0.05$; $F(1,229) = 5.94$, $p < 0.05$; $F(1,229) = 7.83$, $p < 0.01$; $F(1,230) = 20.40$, $p < 0.01$). 이와는 반대로 사회인 집단에서는 한족이 조선족 보다 ‘강하다’, ‘믿음직하다’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평정을 하였다($F(1,83) = 6.04$, $p < 0.05$; $F(1,83) = 5.57$, $p < 0.05$). 연변대생과 연변사회인 집단을 합한 전체 조선족과 한족의 비교에서는 ‘나와 밀접하다’ 차원에서 조선족이 한족보다 높은 평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F(1,317) = 14.81$, $p < 0.01$).

한편, 조선족 내에서도 연령 집단별로 분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연변일중생 집단이 한국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평정을 하였고 연변사회인 집단이 가장 낮은 평정을 하였다. 이는 한국의 개혁정책에 대한 평정 순위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령 집단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변일중생들은 연변대생들에 비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밝다’, ‘높다’, ‘강하다’, ‘믿음직하다’ 그리고 ‘나와 밀접하다’ 와 같은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277) = 18.98$, $p < 0.01$; $F(1,277) = 22.67$, $p < 0.01$; $F(1,276) = 21.14$, $p < 0.01$; $F(1,276) = 13.66$, $p < 0.01$; $F(1,277) = 13.23$, $p < 0.01$). 또한 연변일중생들은 연변사회인들에 비해서도 한국에 대해 높은 평정을 했는데, 연변대생과의 비교에서 와 마찬가지로 ‘밝다’, ‘높다’, ‘강하다’, ‘믿음직하다’ 그리고 ‘나와 밀접하

다' 와 같은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1,125) = 20.72, p < 0.01$; $F(1,124) = 22.78, p < 0.01$; $F(1,126) = 21.68, p < 0.01$; $F(1,125) = 32.28, p < 0.01$; $F(1,125) = 8.13, p < 0.01$). 한편, 연변대생 집단은 연변사회인 집단 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한국을 평정했는데, '믿음직하다'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246) = 13.73, p < 0.01$).

7. 한반도의 통일 전망에 대한 반응

한반도(조선반도)의 통일에 대해 연상되는 느낌이나 생각을 '밝다, 높다, 강하다, 믿음직하다, 나와 밀접하다' 와 같은 의미차원에서 8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에는 각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다소간 긍정적인 인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과 한족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평정상에서 전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조선족이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과 느낌을 가지고 평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선족과 한족의 비교에서 조선족은 한족에 비해 '나와 밀접하다'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평정을 하였다($F(1,314) = 4.20, p < 0.05$). 집단별로 살펴보면, 연변 대학생 집단에서는 조선족이 한족에 비해 한반도 통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강하다'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223) = 3.92, p < 0.05$). 연변사회인 집단에서도 조선족이

〈표 8〉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한 반응

순위	延邊一中		延邊大		延邊社會人	
	朝鮮族	朝鮮族	漢族	朝鮮族	漢族	
밝다	6.40 ^a (2.17) ^b	5.28 (2.26)	4.96 (1.82)	5.77 (2.04)	5.28 (2.27)	
높다	6.25 (2.00)	5.09 (2.17)	4.80 (1.58)	5.54 (2.01)	5.26 (2.21)	
강하다	6.10 (2.13)	5.19 (2.19)	4.36 (1.67)	5.63 (2.05)	5.02 (2.11)	
믿음직하다	5.86 (2.23)	5.16 (2.18)	4.53 (2.02)	5.45 (2.12)	5.10 (2.32)	
나와 밀접하다	5.96 (2.25)	5.47 (2.15)	5.00 (2.36)	5.79 (2.23)	4.83 (2.68)	

a. 8점 척도상에서의 평균

b. ()은 standard deviation

한족보다 상대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조선족 내에서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한 반응을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연변일중생 집단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가장 높은 평정을 하였고 연변대학생 집단이 가장 낮은 평정을 하였다. 연령 집단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변일중생들은 연변대학생들에 비해 한반도 통일을 높게 평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밝다’, ‘높다’, ‘강하다’, ‘믿음직하다’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276) = 14.00, p < 0.01$; $F(1,275) = 16.61, p < 0.01$; $F(1,272) = 9.69, p < 0.01$; $F(1,274) = 5.68, p < 0.01$). 연변일중생들은 연변사회인들과 비교할 때 한반도 통일에 대해 다소 높은 평정을 하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연변사회인 집단은 연변대학생보다 약간 긍정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평정했으나,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 자신의 현재 입장에 대한 반응

자신의 현재 입장에 대해서 연상되는 느낌이나 생각을 ‘밝다, 높다, 강하다, 믿음직하다, 나와 밀접하다’와 같은 의미차원에서 8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한 결과가 〈표 9〉에 집단 평균과 표준편차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은 자신의 현재 입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인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조선족과 한족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집단별로 나누어 각각 살펴볼 때도 연변대학생과 사회인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선족내에

〈표 9〉 자신의 현재 입장에 대한 반응

순위	延邊一中		延邊大		延邊社會人	
	朝鮮族	朝鮮族	漢族	朝鮮族	漢族	
밝다	6.73 ^a (1.69) ^b	6.72 (1.47)	6.48 (1.72)	6.95 (1.44)	7.18 (1.27)	
높다	6.69 (1.73)	6.58 (1.48)	6.06 (1.84)	6.83 (1.31)	6.76 (1.19)	
강하다	6.65 (1.76)	6.62 (1.47)	6.22 (1.60)	7.04 (1.16)	7.00 (1.20)	
믿음직하다	7.11 (1.47)	6.93 (1.49)	6.61 (1.74)	6.91 (1.58)	7.28 (1.06)	

a. 8점 척도상에서의 평균

b. ()은 standard deviation

서의 연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역시 연변일중, 연변대학, 그리고 연변사회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고, 어떤 하위 감각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IV. 연구결과의 종합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 지역 주민들의 심리 상태 및 의식을 탐색적(explorative) 방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연변 지역 중국 주민들의 심리 상태와 의식을 기술하고 조사하기 위해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한족을 비교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연변대, 연변 지역 사회인 집단별로 조선족과 한족간의 차이를 기술하고 비교하였다. 중국의 다수 대표 종족인 한족과 소수민족인 조선족간의 비교를 통하여 연변이라는 공통 거주지역이 지니는 환경적 영향과 더불어 양 민족이 지니는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연변 조선족의 경우, 연령에 따른 의식구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변 조선족을 연변일중생 집단, 연변대 집단, 그리고 연변 사회인 조선족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의 의식 및 심리 상태를 기술하고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은 연변 지역 중국 주민들(특히 연변 조선족)의 심리 상태 및 의식구조에 관한 개관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중국 연변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 및 의식을 탐색하기 위해, 1) 현재의 직업적 소망과 그 달성 가능성, 2)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3)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 4) ‘행복한 인생’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것, 5) 현재 나의 입장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문항을 통하여 개인으로서의 심리 상태와 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개혁(세계화 등), 대한민국, 한반도의 통일 등에 대해 연상되는 생각과 느낌을 평정하도록 하는 문항을 통하여,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그들의 심리적 상태와 의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연변 지역 주민들은 조선족 한족 모두 교원, 문비와 같은 직업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선족과 한족의 직업 선호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변대생 집단의 경우 조선족은 기업가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해 한족 연변대생은 공무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상대적인 차이만을 가지고 미루어 볼 때, 연변대생 집단의 경우 조선족 대학생들은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의 대표적인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가를 선호하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한족 대학생보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수용면에서 적극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선족 학생이 한족 학생보다 한국의 경제적 발

전과 풍요에 더 자극 받은 결과라고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론은 동일한 연변대생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한족 학생은 기업가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동시에 공무원과 같은 체제 안정적인 직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 비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뒷받침 될 수 있다. 한편, 연변 사회인 집단의 경우는 연변대생 집단에서의 결과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조선족은 재회(財會)와 같은 전문직종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한족은 기업가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연변대생 집단의 결과와 다소 다른 것인데, 조선족의 연령에 따른 직업선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결과는 연변 조선족내의 연령에 따른 직업선흐의 차이이다. 연령 집단에 걸친 주목할만한 차이는 기업가를 선호하는 비율에서의 집단간 차이인데, 연변일중생의 경우 기업가를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선택한데 비해 연변대생(조선족)은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 번째로 선호하는 직업으로, 연변사회인(조선족)은 더 낮은 다섯 번째 순위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변 조선족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기업가와 같은 직업을 선호하며, 이는 젊은 층일수록 중국의 개혁 개방에 더 수용적이며 그에 따른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지난 92년 중한수교 이후 급속히 진전된 한국과의 교류 과정에서 연변 조선족의 젊은이들은 더 긍정적으로 시장경제적인 사회체제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둘째, 연변 지역 주민들은 조선족(연변일중을 제외한)과 한족 모두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하는 것’과 ‘보장된 일터’를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장된 일터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하는 것을 조선족과 한족 모두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고 있다는 결과인데, 이는 사랑, 자존심, 명예와 같은 개인적 덕목이라든지 사회발전에 복무하는 것과 같은 집단주의적 의식 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적 조건하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연변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연변 지역 주민들은 모두 ‘생활중의 성공을 거둘 때’를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경우로 꼽았는데,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라든지 친구의 이해나 연애와 같은 것보다는 성공을 거둘 때 행복감을 체험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중요성에 대한 가치선택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가치의식과는 다소 다를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평등한 기회 부여와 개인적 능력의 발휘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본주

의적인 가치의식과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근본적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 과정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연변 지역 조선족과 한족의 상대적 차이를 살펴보면, 연변 조선족은 한족에 비해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하는 것’을 연변대생 집단과 연변사회인 집단 모두에서 한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이는 일하는 곳(한국)의 지역적 난관을 감수하면서도 ‘기회를 잡아 열심히 일하면 기본 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일부 연변 조선족 사회에 만연한 경제력 지향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연변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행’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몇 년 일해서 생활 및 사업상의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변조선족의 현실적 욕구가 사회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에 비해, 연변 지역의 한족들은 ‘사회발전에 복무하는 것’을 조선족보다 높은 비율로써 응답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한족이 전통적인 사회주의 사회에서 강조하던 집단주의적인 가치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조선족 내에서 연령 집단별 ‘심리적 중요성’의 차이를 비교할 때 일련의 경향성이 발견되고 있다. 연변일중생의 경우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하는 것’을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로써 응답하였는데, 이는 10대 조선족들이 성인층에 비해 성공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차이는 연변대학생(조선족)과 연변사회인들(조선족)은 모두 능력발휘와 성공 다음으로 ‘보장된 일터’를 중요하게 꼽은데 비해 연변일중생들은 자존심, 사랑순으로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는 연변일중생의 경우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구체적인 ‘벌이(직업)’에 대한 현실적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된다. 전반적으로 조선족은 나이가 들수록 ‘보장된 일터’, ‘먹고 입는 것’, ‘안전한 거주’와 같은 생활상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들에 심리적인 중요성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나아가 적을수록 자존심, 사랑, 명예와 같은 추상적인 것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행복한 인생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의 연변 지역 주민들은 조선족과 한족 모두 ‘건강’을 행복한 인생과 가장 관련되는 것으로 꼽았으나, 두 번째 순위에서 집단에 걸쳐 다소간 차이를 보였다. 연변대학생 집단의 경우 조선족 학생들은 한족 학생들보다 행복한 인생의 조건으로 사랑을 더 중요시 한데 비해, 한족 학생들은 경제적인 안정에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심리적 중요성’에 관한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것인데, 한족 대학생들은 조선족 대학생들 보다 ‘보장된 일터’를 더 높은 비율로 중요하게 꼽

았으며 조선족 대학생들은 이에 비해 사랑을 높은 비율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연변대학생이라도 한족 학생들은 조선족 학생들에 비해 보장된 일터나 경제적 안정과 같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에 높은 가치를 두는데 비해 조선족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사랑과 같은 심리적인 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족 내에서의 연령에 따른 응답의 추이에서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는데,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경제적인 안정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많이 선택한데 비해 나이가 적은 집단일수록 성실한 사랑과 같은 추상적인 심리적 질을 행복의 조건으로 많이 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살펴본 ‘심리적 중요성’에 관한 응답 결과와 상통하는 것인데, 연변 지역의 조선족은 나이가 들수록 ‘보장된 일터’, ‘먹고 입는 것’, ‘안전한 거주’와 같은 구체적인 필요에 심리적 중요성을 두었고 나이가 적은 집단일수록 자존심, 사랑, 명예와 같은 추상적인 측면에 심리적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족 내에서의 연령별 차이가 빛어내는 하나의 경향성을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넷째, 한국의 개혁정책, 대한민국(남조선), 한(조선)반도의 통일 등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평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심리 상태와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개혁정책(세계화 등 포함)에 대한 중국 연변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며, 조선족과 한족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선족 내에서의 연령 집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개혁정책에 대해 연변일 중생은 가장 높은 긍정적 수치로 평정하였고 그 다음이 연변대학생 그리고 연변 사회인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로 평정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개혁정책에 대한 연변 조선족의 평가는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 대한 감각적 평정에서 연변 조선족 집단이 보이는 연령별 추이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적을수록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정하였고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변 대학생 집단에서는 조선족이 한족에 비해 긍정적인 평정을 한 반면, 사회인 집단에서는 오히려 한족이 조선족보다 긍정적인 평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변 조선족의 연령에 따른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젊은층일수록 한국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일관적인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을 앞서의 논의와 결부지어 고찰할 때, 연변 조선족 중 젊은층일수록 중국의 개혁 개방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지닐 것으로 유추되며 이는 한국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

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연관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은 조선족 성인층이 10대와 20대의 조선족 학생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는 것은, 사회적 변화 및 개인적 변신에 수동적이거나 저항적이라는 기성층 특유의 배경적인 원인 외에도, 최근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에의 초청, 취업, 결혼과 관련한 문제성 행태에 대한 그들의 경각심과 반발심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족과 한족간의 차이는 한(조선)반도의 통일 전망에 대한 평정상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선족은 한족보다 한반도의 통일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상과 느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연변 지역에서 한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변 조선족은 상대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자신과 밀접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족보다는 한반도의 통일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중국 조선족의 의식구조 속에는 동일 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이 면면이 잠재하고 있음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 전망에 대한 평정에서 조선족 내에서의 연령 집단별 차이의 양상은 한국의 개혁정책 또는 한국(대한민국) 전제에 대한 평정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연변일중생 집단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앞서의 평정 결과와 동일하나, 연변대학생 집단이 가장 낮은 평정을 한 것은 이전의 결과와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인 비판능력이 가장 앞서 있는 대학생 집단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장애적인 현실 조건들을 고려하고 실현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추론된다. 따라서 연변 조선족 대학생 집단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부한다는 의미보다는 통일의 실현 과정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의 반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 문항 자체가 전반적인 느낌을 평정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명세화된 문항을 통한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해석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끌으로, 자신의 현재 입장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국 연변 지역 주민들은 조선족 한족 모두 자신의 현재 입장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정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변 주민들의 객관적인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다소 역설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인들 고유의 낙관적 정서와 긍정적인 사고 경향성이 어느정도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중국 연변지역 주민들의 한국과 관련된 의식구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연변

지역의 조선족과 한족의 가치관 및 의식구조는 한국과의 교류 및 중국의 개혁 개방의 흐름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체로 한국과 한국에서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연변지역 조선족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 및 한국과의 교류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따른 가치의식의 변화의 폭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반도의 통일 전망에 관한 의식에서 조선족은 한족보다 한반도 통일을 자신과 더 관련되는 문제로 여기고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을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의식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과도기적 환경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심리적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연변 지역의 조선족과 한족은 모두 자신의 현재 입장을 비교적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한국의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조선족 대학생, 한족 대학생집단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두 집단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한국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의 통일 전망에 대해서는 조선족 대학생이 한족 대학생보다 상당히 긍정적인 경향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연변지역 조선족 대학생들은 다른 조선족 집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한반도의 통일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주목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변 조선족 사회인 집단이 한족보다 한국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부정적이며 연령이 젊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으로 반응했다는 사실 등과 함께, 특히 한국인과 연변 조선족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언

중국 연변 지역의 조선족은 200여년의 이주 역사를 지닌 소수 월경 민족이다. 티베트족, 몽고족, 위그르족 등 중국의 다른 소수 민족과는 달리, 한반도에 모국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인접 지역에 집거하면서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의 항일투쟁, 중국의 문화혁명, 개혁개방정책 등 다양한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한(조선)민족의 전통을 비교적 유지해 오고 있다. 최근년까지 주로 가족 중심 농업 위주의 공동체 생활을 해온 연변 조선족은, 일부 한민족 특유의 전통(가족주의, 지위의식, 높은 청결의식 등)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조선족 규범 속에서 생활하고 공적으로는 중국 한족의 규범을 따라야 하는 2중적 생활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2중적 생활구조와 아울러 정치 환경 및 체제 변화에 따른 규범 변화에 꾸준히 적응해야만 했던 역사적 배경으

로 인하여, 연변 조선족의 의식구조는 ‘주변인적(marginal man)’ 속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도에서 중국으로 시집간 한 며느리’로 자신들의 입장을 묘사하기도 하는 조선족의 의식은 중국이 조국이며 모국이기도 한 다수 한족과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현지 방문 한국 학자들(한상복·권태한, 1993; 이광규, 1994)은 연변의 조선족은 한족에 비해서 사치하고, 과음하며, 힘든 일을 싫어하며, 기회주의적이라는 논평에 접하게 된다. 그리고 ‘조선족의 심리는 맑고 얕은 반면 한족은 어둡고 깊은 면이 있다’는 통속적 가설에 대한 겸증 충동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한편, 한국을 방문하거나 체류 경험이 있는 연변 조선족들의 대 한국 인식은 대체로 “한국은 깨끗하고 질서가 있으며 부유한 반면, 긴장(스트레스)하게 하며 이기적이고 너무 돈을 밝히고 있다”거나 “구경하거나 돈을 벌어올 곳은 되어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놀러 앉아 살곳은 못된다”는 식의 표현으로 집약되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의 1년간의 현지 체류 관찰에 의하면, ‘한반도의 분단이 그들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 통일 후 그들의 위상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기회가 열릴 것으로 믿고 있다’는 일부 보고(한상복·권태한, 1993, p. 105)는 그 내용 타당도에 있어서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통일이 되면 연변 조선족 경제의 지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재의 한국 관광객과 투자자들이 북한 지역으로 선회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우려가 연변 식자들간에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남북한 양쪽을 접촉할 수 있는 ‘연변 조선족이 남북관계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조건도 그렇게 촉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연변 조선족 사회가 정치적으로 한족이 지배하는 거대한 중국의 일부 변방 사회에 불과하다는 점과, 조선족은 아직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 있는 중국의 공민이라는 신분 조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변 조선족의 의식구조 또는 한족과의 의식구조 비교 고찰은 연변 조선족의 역사적 배경, 생활문화에서의 주변인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현지 관찰자료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지나 면접방식에 의한 단기적 조사 결과만으로는 결코 연변 조선족의 의식구조, 한족과의 사회문화적 비교, 또는 한국관계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변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의식과 심리 상태를 조사하면서, 연변 지역 주민들에 관한 일반적인 기초 정보를 얻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조사연구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연변 지역 주민들의 의식 및 심리상태에 관한 생생한 현장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하지

만 앞으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명세화된 연구를 통해 중국 연변 지역 주민의 의식 및 심리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보다 세분화된 질문지 조사나 구조화된 성격검사 등을 통한 비교분석과 경험적인 현장연구가 계속 이루어질 때 중국 연변 지역 주민들의 심리 상태에 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상복·권태환

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학교출판부.

이광규

1994 재중한인, 일조각.